



누에바 칸시온의 전개와 단절, 그 이후 이야기

정 승 희

한국에서 칠레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ón Chilena)의 이해와 수용은 73년 9월 쿠테타가 일어나고 빅토르 하라가 고문으로 사망하던 그 ‘드라마틱한’ 순간에서 거의 멈춘 듯하다. 쿠테타 이후 칠레 내에서 누에바 칸시온이 단절되고, 누에바 칸시온 가수들이 대부분 유럽으로 망명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그들이 80년대 후반 칠레로 돌아온 뒤 어떤 상황과 마주해야 했는지는 누에바 칸시온에 관심이 있다는 소수의 이곳 사람들에게도 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누에바 칸시온을 계승해서 칠레 내에서 일어난 칸토 누에보(Canto Nuevo) 역시 한국에서 생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칠레 누에바 칸시온은 60년대 중반에 태동되어 68-70년까지의 전성기를 지나 단절되고, 흩어지며, 새로운 세대에 의해 계승되고 또 다시 모이는 등 시간의 부침속에서도 지금까지 그 희미한 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누에바 칸시온의 전개와 단절, 그 이후의 양상과 오늘날의 모습까지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이곳

에서 이루어지는 누에바 칸시온에 대한 논의와 정보를 업데이트 해볼까 한다.

1. ‘파라 가족의 페냐’에서 탄생한 누에바 칸시온

칠레 누에바 칸시온이 구체적으로 촉발하게 된 계기는 비올레타 파라와 함께 파리에서 체류하던 앙헬 파라와 이사벨 파라가 64년 7월 산티아고로 돌아와 카르멘 340번지에 있던 친구 후안 카프라의 집에 ‘파라 가족의 페냐’²⁾(La Peña de los Parra)를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앙헬과 이사벨은 자신들이 파리에서 생계를 위해 노래부르던 카바레³⁾ 공간을 염두에 두고 산티아고에 새로운 음악·문화 공간을 열었다.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향유를 갈망하던 젊은이들은 곧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파라 가족의 페냐는 곧 누에바 칸시온의 진원지가 되었다. 앙헬 파라, 이사벨 파라, 빅토르 하라, 파트리시오 만스, 롤란도 알라르콘 등 젊은 음악가들이 그곳에 모여 공연을 했고, 페냐는 항상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페냐 공간의 컨셉은 산티아고 등 수도권 중심의 대학가로도 퍼져나가 65년 8월 칠레 대학 발파라이소 분교에 오스발도 로드리게스, 파요 그론도나 중심으로 페냐가 만들어졌고, 산티아고 공과대학에 1966년 만들어진 페냐는 킬라파윤과 인티 이이마니의 산실이 되었다.

페냐가 예상 외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그곳의 음악가들은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워 단순한 가수와 해석자의 입장에서 창조자로 거듭나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칠레를 벗어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레퍼토리와 악기들을 익

2) 페냐는 ‘모임’, ‘동아리’라는 뜻의 스페인어다.

3) 식사를 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히고(특히 안데스 리듬과 악기를 적극 수용했다), 마르고트 로올라, 비올레타 파라가 공고히 해둔 칠레 중부 지방의 민요 전통 뿐만 아니라 칠레 북부와 남부의 리듬도 가져왔다. 롤란도 알라르콘 같은 경우는 스페인 내전의 노래를 가져와 부르기도 했다. 또한, 구성의 측면에서는 킬라파운과 인티 이이마니와 같은 남성 중창그룹이 등장해 솔로 가수가 대부분이었던 누에바 칸시온의 분위기에 강인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더했다.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복장과 스타일에 대한 고민도 대두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킬라파운의 검정색 폰초와 인티 이이마니의 붉은색 폰초를 들 수 있다. 폰초는 그들이 추구하는 남성적인 이미지,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감안한 복장이었고, 두 그룹은 80년대 유럽 망명 중일 때도 무대에서 폰초 스타일을 고수했다.

2. 누에바 칸시온 이름 획득

60년대 후반 칠레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졌다. 1967년에는 가톨릭 대학에서 대학 개혁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68년에는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어 갔다. 1968년에는 발파라이소 대학에서 ‘제1회 사회의식을 담은 노래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했다. 1968년 말 ‘칠레 공산주의자 젊은이 모임’(Juventud comunista de Chile)의 문화부에서 디카프(DICAP: Discoteca del cantar popular) 레이블을 만들어 새로운 음악과 언어를 찾는 젊은 음악인들에게 음반 녹음 기회를 제공한 것은 누에바 칸시온의 발전에 핵심적이었다. 디카프는 1973년 쿠테타로 강제로 문을 닫을 때까지 5년간 수준 높고 다양한 음반들을 기획해 누에바 칸시온의 산파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안토니오 라레아, 비센테 라레아, 루이스 알보르노스 등의 젊은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디카프의 음반 커버는 매우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예술적 성과물이었다.

1969년 라디오 디제이였던 리카르도 가르시아가 가톨릭 대학의 후원을 받아 ‘제1회 누에바 칸시온 페스티벌’을 조직함으로써 ‘새 노래’라는 뜻의 ‘누에바 칸시온’은 비로소 공식적인 이름으로 정착했다. 이 행사를 통해 수년간 지속되던 일련의 음악적·문화적 움직임은 ‘누에바 칸시온’이라는 이름으로 수렴되었다. 첫 페스티벌에서 빅토르 하라는 ‘농민에게 바치는 기도’(Plegaria a un labrador)로 리차드 로하스의 ‘라 칠레네라’(La chilenera)와 함께 공동 1위를 했다. 특히 빅토르 하라의 ‘농민에게 바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가톨릭 주기도문의 틀을 빌려와 농민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곡으로, 농민들에게 친숙한 가톨릭 종교성을 저항으로 바꾸는 전복적이고 폭발적인 곡이다. 누에바 칸시온 페스티벌은 70년 2회 대회까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71년 3회 대회 때는 그 수준이나 관객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져 3회를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이후 ‘누에바 칸시온’이라는 이름은 사회의식을 담은 다른 중남미 여러 나라의 노래 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어 쓰이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라틴아메리카 누에바 칸시온’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3. 아엔데의 인민연합과 운명을 같이한 누에바 칸시온

누에바 칸시온은 시기적으로 1968년에서 70년이 그 전성기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엔데 대통령 선거 캠페인과 집



킬라파운의 〈산타마리아 데 이키케 칸타타 Cantata de Santa María de Iquique〉(1970)

권기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정치적 맥락을 획득했으며, 그 안에서 호흡함으로써 그 당시 다양한 문화적 움직임, 벽화, 그래픽아트, 영화, 연극, 출판 등의 부흥과 더불어 주목할만한 결과물들을 생산해냈다.

누에바 칸시온의 가장 탁월한 이론가였던 오스발도 로드리게스⁴⁾

는 〈산타 마리아 데 이키케 칸타타〉를 누에바

칸시온의 가장 중요한 음반이라고 평가한다. 1969년 말경 루이스 아드비스가 작사, 작곡했고, 킬라파운은 70년 7월 제 2회 누에바 칸시온 페스티벌에서 이를 초연했다. 이 ‘민중 칸타타’는 1907년 12월 21일 칠레 북부 광업도시 이끼게에서 초석광부와 가족들이 파업을 하던 도중 산타 마리아 학교에 머무르다 경찰의 총격으로 2,400여명이 사망한 ‘산타 마리아 학교 대학살’ 사건을 다룬다. 이 사건은 칠레 공권력 역사가 남긴 가장 큰 오점 중 하나이며, 공식 역사에 의해 거의 은폐되고 잊혀질 뻔했지만 음반으로 부활하며 대중의 집단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루이스 아드비스는 칸타타라는 클래식 음악의 틀을 빌려 억압받고, 소리 없이 죽어가야 했던 민중들의 역사를 담았으며⁵⁾, 이 작품은 현재까지도 종종

4) 시인이자, 누에바 칸시온의 멤버이기도 한 그는 칠레 누에바 칸시온에 대한 단행본 2권을 저술했다.

5) 루이스 아드비스를 시작으로 칠레의 클래식 음악가들은 누에바 칸시온의 형식을

연주되는, 칠레 대중음악의 귀중한 유산으로 남았다. ‘마지막 노래’의 가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당신들은 지금까지 들려준 이야기들은 이미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 앉아 있지들 마세요

칠레는 너무 길쭉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울 태세를 하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그 언젠가
당신들이 들은 이야기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인티 이이마니의 음반 〈인민연합 프로그램 노래〉(1970)는 아엔데 정권의 정책을 알리고 선전하기 위해 만든 음반이다. 루이스 아드비스와 세르히오 오르테가가 작곡했고, 홀리오 로하스가 가사를 썼다. 한 품팔이 농민의 목소리를 빌려 인민 연합의 정책

풍성하게 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찾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매우 큰 성과를 남겼다. 대표적 인물로는 세르히오 오르테가, 구스타보 베세라, 하이메 소토 등이 있다.



인티 이이마니 〈인민연합 프로그램 노래 Canto al programa〉(1970)

이 어떠한 것이며,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리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야기와 노래가 번갈아가며 총 23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다. 이 음반의 기획 의도는 글자를 모르는, 농촌의 고립된 농민들에게까지 인민연합의 정책을 알린다는 것이었으나, 농촌 구석구석까지 축음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아 의도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 음반의 마지막 곡은 인민연

합 선거 캠페인 곡이었던 ‘벤세레모스’(Venceremos, ‘우리 승리하리라’라는 뜻)이다. 벤세레모스는 원래 쿠바혁명의 슬로건, 즉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우리 승리하리라!’(Patria o muerte, ¡venceremos!)에서 따온 것인데, 쿠바 혁명 이후 중남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벤세레모스는 세르히오 오르테가가 작곡하고, 클라우디오 이투라가 작사했으며, 킬라파윤의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와 더불어 아마 누에바 칸시온의 가장 유명한 곡일 것이다.

조국의 깊은 고통으로부터
민중의 외침이 일어나네
이미 새로운 새벽이 예고되고
칠레 전체는 노래하기 시작하네

용감한 병사의 모범이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 것을 상기하며
우리는 먼저 죽음과 맞설 것이네
절대로 조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나
천개의 사슬을 깨부수고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는 비참함을 극복하리라

농민들, 군인들, 광부들
조국의 여성들
학생들, 직장인들, 노동자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내리라

우리는 영광의 땅의 씨앗을 뿌릴 것이고
사회주의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모두 함께 역사를 만들 것이니
이뤄내자, 이뤄내자, 이뤄내자

롱키 그룹(Groupo Lonqui)이 인민연합의 초기 정책 마흔 개를
담아 만든 음반 〈노래로 부른 마흔 개의 정책〉(1971) 역시 인상적
이다. 롱키 그룹은 리차드 로하스와 에스터 곤살레스가 칠레 민
요를 바탕으로 깔고 이끌어온, 누에바 칸시온 그룹이다. 리차드 로
하스는 71년 이 음반의 노래들을 작사, 작곡했는데, 마흔 개의 정
책을 LP양면에 담아야 하다 보니 곡들은 1분 내외로 매우 짧다.
마흔 개의 곡들은 칠레의 다양한 민요 리듬을 번갈아가며 사용하
고 있으며, 음반은 음악적인 수준도, 정책을 알리는 계몽적 목적
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롱키 그룹 〈노래로 부른 마흔 개의 정책 40 medidas cantadas〉(1971)

‘벤세레모스’로 시작된 인민연합의 희망의 찬가는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El pueblo unido jamás será vencido)의 비장함으로 끝났다. 아엔데 집권 3년차 칠레는 좌우로 양분되었고, 쿠테타의 위험이 감지되었다. 아엔데를 지지하고, 또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누에바 칸시온 멤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즉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라도 쿠테타를 저지해야만 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곡은 세르히오 오르떼가 작곡하고 킬라파윤이 작사했으며, 쿠테타가 일어나기 몇 달 전인 1973년 6월에 음반으로 제작되었다. ‘단결한 민중은...’은 인민연합의 마지막 상징 같은 곡으로 유럽으로 망명한 누에바 칸시온 가수들의 저항과 칠레를 향한 세계인의 연대를 표상하는 곡이 되었으며, 유럽에서는 인티 이이마니에 의해 다시 녹음되어 널리 알려졌다.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서 노래부르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로 뭉친 깃발들이 이미 전진하고 있다.
너도 나와 같이 가야한다
그렇게 하면 너의 노래와 너의 깃발이 꽃피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새벽의 떠오르는 붉은 태양빛이
이미 알리고 있다
삶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일어나서 투쟁하자
민중은 승리할 것이다
도래할 삶은 더 좋을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책임질 것이다
외침속에서
투쟁을 위한 천 개의 목소리가 드높여질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할 것이다
자유의 노래는 단호히 말할 것이다
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이제 민중은 투쟁하며 일어나고
거인의 목소리로 외친다
“앞으로”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고

조국은 단결을 이뤄내고 있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요동칠 것이다
뜨거운 광물질의 소금밭에서부터
남쪽의 숲까지
투쟁과 노동 속에서 하나되어
모두가 전진할 것이다
그들이 조국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의 발걸음이 이미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일어나서 노래하라
 민중은 곧 승리할 것이다
 이미 수백만이 모여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강철로 된 그들은
 불타고 있는 요새이다
 그들의 손에는
 정의와 이성이 들려있다
 여성들이여
 열정과 용기로
 그대도 노동자와 함께 이곳에 있다.

이제 민중은 투쟁하며 일어나고
 거인의 목소리로 외친다
 “앞으로”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고

1973년 9월 11일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누에바 칸시온은 폭력적으로 단절되었다. 빅토르 하라는 고문으로 사망했고, 대부분의 누에바 칸시온 주자들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이 유럽으로 망명을 떠났다. 앙헬 파라는 칠레 북쪽 피사구아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뒤 망명했고, 이사벨 파라, 파트리시오 카스티요, 파트리시오 만스는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피신한 뒤 프랑스로 갔다. 오스발도 로드리게스는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등 십수년간 유럽 여러 나라를 전전

했다. 킬라파운과 인티 이이마니는 쿠테타가 발발하던 당시 유럽 순회공연 중이어서 칠레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 길로 각각 공연 중이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망명생활을 시작했다. 군부는 공식적으로 누에바 칸시온을 금지했고, 안데스 악기(케나, 삼포냐, 차랑고)를 사용도 금지되었다.



디카프 로고와 알레르세 레이블 포스터

4. 알레르세 레이블과 칸토 누에보(Canto Nuevo)

제1회 누에바 칸시온 페스티벌을 기획하기도 했던 리까르도 가르시아는 칠레 내에서 음악의 불씨를 이어가고자 1975년에 알

레르세(Alerce) 레이블을 만들었다. 그는 이 음악적 흐름을 ‘칸토 누에보’로 이름 지었고, 알레르세 레이블은 실질적으로 디카프를 대신하며 칸토 누에보의 생산지 역할을 했다. 칸토 누에보를 번역하면 역시 ‘새 노래’라는 뜻이니 누에바 칸시온과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상황과 맥락은 변했지만 누에바 칸시온의 정신은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알레르세 레이블의 첫 음반은 정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 민요그룹 차말(Chamal)의 칠로에 민요 모음집인 <알레르세의 땅 Tierra de Alerce>(1976)이 선택되었고, 두 번째 음반인 오르티가의 <너의 노래 Tu cantar>(1976)부터 실질적으로 칸토 누에보가 시작되었다. 칸토 누에보의 이름하에 망명을 떠나지 않은 누에바 칸시온 멤버들과 대학생을 중심으로한 새 그룹들이 대거 모였다. 그룹 야푸, 파요 그론도나, 산티아고 델 누에보 엑스트레모(Santiago del nuevo extremo), 아브릴(Abril), 아켈라레(Aquelarre), 오르티가(Ortiga), 쉐케와 닐로(Shwenke y nilo), 에두아르도 페랄타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들은 비밀스럽게 페냐를 운영하고, 칠레와 라틴아메리카 리듬에 대한 연구도 지속했으며, 검열로 인해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가사는 피했다. 그들의 노래는 가톨릭교회가 제공한 장소, 빈민가 조직의 공간 등을 통해서 향유되었고, 그들은 산티아고의 ‘카페 델 세로’, ‘아소카르의 귀퉁이’ 등의 카페에서 자주 공연을 했다. 대중 매체가 통제당하고 있기는 했지만 몇몇 라디오 방송들, 특히 <누에스트로 칸토> 방송이 적극적으로 칸토 누에보를 전파했다. 음악 중심의 문화 월간지 《라 비시클레타》 역시 칠레와 라틴아메리카의 누에바 칸시온, 칸토 누에보, 문학 특집 등을 담으며 80년대 칠레 젊은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칸토 누에보는 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이후 알레르세 레이

블은 ‘칠레의 새로운 록’ 등을 기획하며 다변화를 꾀했다. 칸토 누에보에 대해서는 칠레에서 처음으로 2007년 단행본 『칠레 칸토 누에보: 음악적 유산』이 나와 체계적인 정리와 가치 평가를 시도했다.

5. 유럽에서의 누에바 칸시온과 칠레로의 귀환

한편, 유럽으로 망명한 누에바 칸시온 뮤지션들은, 특히 망명 초창기에 동독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저항과 연대의 슬로건 하에 기획된 많은 공연에 많이 참석했고, 그 공연의 많은 부분이 음반으로 남아있다. 칠레 뮤지션과 유럽 뮤지션들과 합동 공연을 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킬라파운과 인티 이이마니에게 유럽이라는 기반은 음반을 내고 공연을 다니는 기회 이상이었다. 그들은 유럽에서 음악적으로 성숙했으며, 다양한 음악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거물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망명한 누에바 칸시온 뮤지션들은 칠레로 입국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80년대에 킬라파운, 인티 이이마니는 칠레 이웃나라, 아르헨티나 멘도사와 부에노스 아이레스, 페루 따끄나 등에서 공연을 갖기도 했고, 많은 칠레인들이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자국 뮤지션의 공연을 찾아 감격에 젖었다.

1988년 추방당했던 대부분의 예술가들이나 지식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되었고, 피노체트가 8년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이루어졌다. 투표 이전에 집권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각각의 캠페인이 한창이었고, 인티 이이마니와 킬라파운은 입국 금지가 풀리자마자 바로 귀국해 피노체트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No 캠페인’에 가담했다. 투표는 집

권 반대가 55.99%를 득표해 89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중도좌파 콘세르타시온의 후보 아일윈이 승리하여 칠레는 피노체트 체제에서 민주화로 이행하게 되었다.

킬라파운은 88년 'No 캠페인'에 참여한 뒤 89년에는 감격적인 칠레 전국 순회공연을 치른다. 오랜 기다림 끝에 조국으로 돌아와 공연하는 감격은 고스란히 두 장짜리 음반에 담겼다. 하지만 90년대에 그룹의 활동은 매우 저조해 파리에 거주하는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 단 두장의 정규 음반만을 냈으며, 결과적으로는 로돌포 파라다가 이끄는 파리파와 에두아르도 카라스코의 칠레파로 나뉘어 내분을 겪는다. 2003년 칠레파 킬라파운은 다시 뭉쳐 국내 순회공연을 했고, 프랑스, 영국, 에콰도르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2009년 6월 프랑스 법정에서는 칠레파의 '적법함'에 손을 들어주어 파리파가 킬라파운이라는 이름을 음반이나 다른 매체에 쓰지 못하도록 결정 내렸다.

킬라파운에 비교하면 인티 이이마니는 칠레로 돌아온 뒤 90년대에도 꽤 활발히 활동하며 꾸준히 음반을 냈다. 하지만 2001년 33년간 그룹의 음악감독을 맡은 오라시오 살리나스가 그룹에서 탈퇴하면서 분쟁의 씨앗을 남겼다. 그가 탈퇴한 이후 많은 오리지널 멤버들이 탈퇴하고 새로운 멤버들이 영입되었으며, 새로운 멤버들이 만들어내는 인티 이이마니의 음악적 정체성에 의문을 가하며 2004년 오라시오 두란마저 탈퇴해 오라시오 살리나스와 호세 세베스와 같이 다시 인티 이이마니를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즉, 호르헤 쿨론, 마르셀로 쿨론 형제가 이끄는 인티 이이마니(대부분 새로 영입된 멤버들이다)와 2004년 새로 결성된 오라시오 살리나스 주축의 인티 이이마니(오리지널 멤버가 대다수이다)로 양분되어 싸움이 시작되었다. 2005년 중재안은 오라시오 살리나스의 그룹은 '역사적 인티 이이마니'(Inti-Illimani histórico), 쿨

론 형제의 그룹은 ‘새 인티 이이마니’(Inti-Illimani nuevo)라는 이름을 쓰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호르헤 쿨론은 자신이 인티 이이마니에서 탈퇴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룹의 연속성이 끊어진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새 인티 이이마니’라는 이름을 거부, 그룹의 이름을 ‘Inti-Illimani(R)’로⁶⁾ 표기하고 있다. 두 개의 인티 이이마니는 지금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계속 분쟁중이다.

누에바 칸시온 멤버 중 누구보다도 칠레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오스발도 로드리게스는 89년 고향 발파라이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문화적인 환경이 완전히 변하고, 또 거칠어진 칠레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도 못해 이탈리아 바르돌리노로 다시 ‘이민’을 가야했으며 그곳에서 췌장암 선고를 받고 96년 3월 사망했다. 칠레에 돌아가고 싶은 그의 열망,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 칠레 사회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담은 그의 편지글들을 읽으면 그의 이른 죽음이 매우 안타깝게 다가온다. 이사벨 파라는 파리에서 귀국하였으나 역시 초기에는 시간의 간극을 매우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비올레타 파라 재단을 세워 운영하고,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앙헬 파라의 경우에는 칠레로 돌아오지 않고 프랑스에 계속 남을 것을 선택했다.

6. 마무리하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망명을 떠나야했던 누에바 칸시온의 멤버들은 15년 이상의 시간을 바깥에서 보낸 뒤 칠레로 귀국했지

6) ‘R’은 저항(Resistencia)의 ‘R’자일 수도, Registrado(Registered)의 ‘R’일 수도 있다.

만, 돌아온 칠레는 그들이 알고 있던 조국이 아니었다. 아옌데의 계획은 중도에 좌절되었고, 그간 피노체트가 이식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과 경쟁 구도는 칠레 사회와 사람들을 상당히 피해를 주고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사회 구조속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란 그들이 70년대에 꿈꾸고 만들어가던 사회와 문화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유럽에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하던 킬라파운이 감격적으로 귀국했지만, 90년대에 거의 활동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의 칠레 사회에서 무슨 음악을 하고, 무슨 메시지를 담을지 그들이 확신하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누에바 칸시온은 현재 칠레 사회에서 완전히 맥락을 상실했다는 생각을 할 즈음 필자는 뜻밖에도 2008년 초 디카프 레이블의 사무실을 발견했다. 네루다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텔리아 델 카릴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의 한 공간을 디카프 레이블의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집의 별채 같은 곳에는 68년에서 73년까지 만들어진 디카프의 쟁쟁한 음반들의 LP커버들과 디카프이 새로 만든 시디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쿠테타 당시 군부가 음원과 음반을 다 부수었지만 디카프가 새로 사무실을 열고 작업을 재개한 것을 알고서는 쿠테타 직후 몰래 디카프의 음반들을 숨겨 망명했던 칠레인들이 하나씩 그 음반들을 보내준 것으로, 그 결과 과거 디카프의 거의 전 음반들이 모였다고 했다. 디카프 관계자는 차근차근 그 음반들을 시디로 복각할 계획이며, 현재는 동시대의 새로운 뮤지션들의 음반을 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당연히 현재 칠레 사회를 그리고 도 비판하는 음악은 누에바 칸시온 풍은 아니다. 예를 들어, 레구아 욕(Legua York)같은 빈민지구 출신의 힙합가수의 음반도 2000년대 디카프의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다.

초토화되어 망가진 줄로만 알았던 그 시절 디카프가 부활했다

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미약하나마 희망을 본 것 같았다. 새삼 누에바 칸시온이, 음악이 칠레의 문화정체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떠올려보았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기엔 누에바 칸시온의 성과도, 칸토 누에보의 시도도 매우 방대하고 깊다. 거기에 몸담았던 음악가들이 80년대에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드문드문 내고 있는 음반들도 너무 흩어져있어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 그러한 자료들이 더 엄밀히 기록되고, 향유되고, 가치평가 되어 지금 이 시대에서 그것들을 반추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칠레 누에바 칸시온만큼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한 시대를 살고 기록한 음악 운동은 드물며, 그것이 남긴 유산은 칠레 사람의 것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또 세계인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승희 - 칠레 대학에서 중남미 칠레 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번역서로는 페리 로시의 『쓸모없는 노력의 박물관』 (2005), 데스노에스의 『저개발의 기억』 (2009)가 있다.
